

관계 상실 경험 여고생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이 유 리

장 현 아[†]

대전대학교

본 연구는 관계 상실 경험 여고생이 지각한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외상 발생 시기가 1개월 이하, 외상 경험 당시 고통이 보통(4점) 이하로 체크된 자료, 관계 상실 외상(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대인관계 파탄, 적응의 어려움, 이혼 및 별거)에 해당하지 않는 외상을 제외한 286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외상경험 질문지, 자기노출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의도적 반추 척도, 외상후 성장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통계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은 Bootstrap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자기노출과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가 완전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가 부분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관계 상실, 여고생,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 외상후 성장

* 이 논문은 이유리(2016)의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장현아,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응용과학관 2316호

Tel : 0422802455, E-mail : hyuna@dju.kr

자연재해, 테러, 사고와 개인의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배신 등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입은 심리적 상처를 외상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살면서 1개 이상의 외상사건에 노출될 확률은 78.8%라고 한다(은헌정, 이선미, 김태형, 2001).

Kellermann과 Hudgins(2000)는 외상 중에서도 상실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으며, Leist(1979)는 상실을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외상이라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과의 이별, 실연, 절교, 부모 이혼 등 타인과 정서적, 신체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 상실 경험은 심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최선재, 안현의, 2013; 박선정, 2015). 청소년기의 외상 경험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성인의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김현미, 정민선, 2014; 김현미, 정민선, 2015). 즉, 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이 당시 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적절한 발달을 위협하며 장기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최은영, 2010). 청소년들의 외상사건 경험 연구(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에 따르면 전체 외상사건(1278건) 중 ‘가족 이외에서 경험한’ 관계 실패, 심각한 거절, 갈등 경험 또는 목격(166건, 13.0%)과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126건, 9.9%)이 다른 외상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또한 남자(536명, 41.9%)에 비해 여자(715명, 51.7%)가 외상사건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중학교 245명(19.2%), 고등학교 719명(56.3%), 대학교 이상 286명(22.4%)으로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외상사건을 보고하였다. 양난미, 이은경, 송미경,

이동훈(2015)의 연구에서는 상실, 가족갈등, 대인관계 문제와 같은 외상사건이 여자 대학생이 자주 경험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외상사건의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상사건의 영향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이 의식에 침투하여 재경험되거나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고, 사건과 관련된 인지과 감정의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며,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 관계 상실의 경험은 수면장애, 문제 행동, 신체적 불편, 철회된 행동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날 수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관계 상실은 우울, 상실감, 부모에 대한 분노, 이혼에 대한 거부감, 외로움, 의기소침함 등의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윤우영, 유금란 2013), 부모와의 사별로 인한 관계 상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자원을 부족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성인의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박효실, 2002). 또래관계에서 왕따나 따돌림과 같은 관계 상실은 소외감을 느끼게 하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자살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김희숙, 박완주, 박경란, 김미향, 2012).

하지만 모든 사람이 외상을 경험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상사건을 겪은 뒤 외상 이전의 적응 수준과 기능을 뛰어 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즉,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삶에 대한 감사의 증가, 새로운 인생의 목표 설정, 개인의 강점과 새로운 가능성 발견, 친밀한 관계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Tedeschi와 Calhoun(1995)

은 이러한 변화를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고 정의하였다.

외상후 성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후 성장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외상 경험에 대한 자동적이고 침습적인 반추의 상태에서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인 반추를 촉진하며 외상후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양귀화, 2014).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삶을 뒤흔드는 외상사건은 인생의 전반을 통해 형성된 신념 체계와 이해,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내적 도식과 기존의 목표를 위협한다. 이와 함께 외상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되새김질하여 생각하는 자동적이고 침습적인 반추가 나타나게 되는데, 침습적인 반추는 외상 기억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 개인은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의 외상 경험을 타인과 나누고자 자기노출을 하게 되고(박준호, 2007),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위안을 얻고 감정의 해소를 경험하게 된다(정민선, 2014).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외상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의도적인 반추를 촉진 시킨다(신선영, 2009). 의도적인 반추는 외상사건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잠재적인 의미나 외상사건이 주는 긍정적인 점 등을 찾아내는 인지 양식을 말하며, 이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재평가,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박보경, 2013).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하며 개인의 강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등 외상후 성장에 이르게 된다.

Tedeschi와 Calhoun(2004)의 외상후 성장 모델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유진(2009)의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의도적 반추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민선(201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정민선(2015)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의 대상은 모두 다르지만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 상실 경험자의 외상후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선영(2014)의 연구에서 의미재구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처치집단의 외상후 성장 수준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상사건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최선의 대처방법과 계획을 다시 세우는 의미처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외상후 성장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박선정(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 모두 외상후 성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외상후 성장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특히 외상사건으로 많이 보고된 관계 상실의 외상후 성장을 다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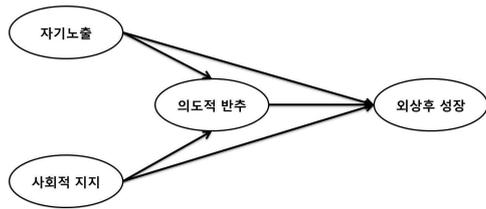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외상을 경험하게 되며, 한 번 이상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외상은 많은 경우 아동 및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긍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에 비해 외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관계 상실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말한 Tedeschi와 Calhoun(2004)의 외상후 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자기노출 및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을 예언하는 변인인지 확인하고자 하며 자기노출 및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직접, 간접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여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41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외상 발생 시기가 1개월 이하, 외상 경험 당시 고통이 보통(4점)이하로 체크된 자료, 관계 상실 외상(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대인관계 파탄, 적응의 어려움, 부모의 이혼 및 별거에 해당하지 않는 외상을 제외한 286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교에서 심사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1040647-201506-HR-017-03)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5년 8월, 담임교사의 안내로 설문지 진행되었고 직접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외상경험 질문지, 자기노출척도, 사회적 지지척도, 의도적 반추척도, 외상후 성장척도가 사용되었고,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내외였다.

측정도구

외상경험 질문지

외상사건의 종류 및 시기, 외상경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송승훈(2007)의 외상경험 질문지를 신선영(2009)이 보완한 외상 사건 목록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에는 참가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극심하게 충격적이었던 사건들 및 매우 힘들고 비극적이었던 사건들을 모두 응답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여 그 사건을 ‘외상사건’이라고 정의한 후, 이를 떠올리며 설문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 상실 외상에 해당되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대인관계 파탄(이별, 실연, 절교 등), 적응의 어려움(학교에서 소외, 따돌림

등), 부모의 이혼 및 별거 사건의 경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외상사건의 시기와 더불어 외상경험 당시와 최근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7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자기노출

박준호(2007)가 개발한 자기노출척도이며 외상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하여 타인에게 언어로 제공한 자기노출 수준을 측정한다. 사건에 관한 노출 5문항과 그 사건에 대한 감정노출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등이 있다. 각 질문에 대해 ‘전혀 없음’에서 ‘매우 많음’의 1점에서 7점으로 구성된 Likert식 척도로 되어있다. 박준호(2007)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8이었다.

사회적 지지

외상 경험 당시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이 만든 척도를 기초로 유희정(2012)이 수정한 사회적 지지 척도이다. 총 25문항으로 되어있고,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다. 하위 요인으로는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지지는 신뢰, 관심, 존경, 애정, 경험 등의 행위를 말하며,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적 지지는 돈이나 물건 등을 제공하고, 일을 대신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하며,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부정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었다.”, “내가 어려운 상황(위기)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등이 있다. 유희정(2012)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8이었다.

의도적 반추

Calhoun, Cann, & Tedeschi(1999)이 개발하고 신선영(2009)이 번안한 척도이며 전유진(2009)이 수정한 척도이다. 외상경험 당시부터 지금까지를 한 시점으로 보고, 침투적 반추를 제거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질문에 대해 1점 ‘전혀 없음’에서 7점 ‘매우 많이 반추함’의 7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있다. 이 척도에서 의도적 반추는 외상사건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잠재적인 의미나 긍정적인 점 등을 찾아내는 것으로 문항의 예로는 “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경험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경험에서 어떤 좋은 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등이 있다. 전유진(2009)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었다.

외상후 성장

Tedeschi와 Calhoun(1995)이 개발하고 송승훈(2007)이 변안한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Korea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하였다. 외상사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의 경험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상사건 경험 후 긍정적인 변화의 정도를 개인이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각 질문에 대해 0점 '경험하지 못하였다'에서 5점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5문항), 자기지각의 변화(6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3문항), 영적 종교적 관심 증가(2문항)가 있다. 문항의 예로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내 삶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등이 있다. 송승훈(2007)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 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

며, 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외상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분석 및 각 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검증을 실시하였다. 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위해 홍세희(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외상사건의 유형

개인이 경험한 외상사건 중 관계 상실 외상에 관한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가장 많은 외상유형으로 대인관계 파탄(이별, 실연, 절교 등)이 108명(37.8%)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적응의 어려움(학교에서 소외, 따돌림 등)이 99명(34.6%),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이 55명(19.2%), 부모의 이혼 및 별

표 1. 외상사건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N=286)

관계 상실 외상 유형	빈도(명)	비율(%)
대인관계 파탄(이별, 실연, 절교 등)	108	37.8
적응의 어려움(학교에서 소외, 따돌림 등)	99	34.6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55	19.2
부모의 이혼 및 별거	24	8.4

거가 24명(8.4%)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의 기술 통계치

연구 자료에 대한 정상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West, Finch 와 Curran(1995)에 따르면 왜도는 자료의 정규성이 유지되는지를 볼 수 있으며, 첨도는 정규분포곡선에서 위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크면 정규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 외상후 성장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다. 왜도의 경우 가장 높은 절대값이 -.664, 첨도의 경우

가장 높은 절대값이 -.837로 위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 가정인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인들의 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후 성장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사회적 지지($r=.54, p<.001$)이며, 그 다음은 의도적 반추($r=.47, p<.001$), 자기노출($r=.29, p<.001$)이었다. 자기노출의 하위요인인 사건에 관한 노출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표 2. 측정변인 기술 통계치 (N=286)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skewness)	첨도 (kurtosis)
자기노출	사건에 관한 노출	19.37	7.93	-.183	-.837
	사건에 대한 감정노출	19.07	8.14	-.151	-.766
	전체	38.44	15.64	-.164	-.799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26.41	5.44	-.638	.429
	평가적 지지	21.99	4.69	-.498	.571
	정보적 지지	21.74	4.67	-.589	.833
	물질적 지지	20.93	4.39	-.254	.113
	전체	91.08	18.34	-.507	.564
의도적 반추		20.28	6.41	-.239	-.051
외상후 성장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14.44	5.60	-.664	.346
	자기지각의 변화	17.24	6.09	-.498	.636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8.79	3.21	-.664	.664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3.99	2.36	.170	-.315
	전체	44.46	14.51	-.459	.770

표 3. 전체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N=28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89***	1												
3	.97***	.97***	1											
4	.37***	.36***	.38***	1										
5	.31***	.30***	.31***	.92***	1									
6	.35***	.34***	.36***	.89***	.88***	1								
7	.35***	.32***	.34***	.89***	.86***	.86***	1							
8	.36***	.35***	.36***	.97***	.96***	.95***	.94***	1						
9	.29***	.30***	.30***	.28***	.27***	.31***	.29***	.30***	1					
10	.32***	.36***	.35***	.56***	.51***	.56***	.53***	.57***	.37***	1				
11	.21***	.23***	.23***	.51***	.54***	.53***	.51***	.55***	.47***	.73***	1			
12	.25***	.25***	.26***	.29***	.29***	.35***	.31***	.33***	.42***	.52***	.67***	1		
13	.03	.05	.04	.13*	.13*	.16***	.15*	.15*	.20***	.41***	.45***	.48***	1	
14	.27***	.30***	.29***	.52***	.51***	.54***	.51***	.54***	.47***	.88***	.93***	.78***	.62***	1

1. 사건에 관한 노출, 2. 사건에 대한 감정노출, 3. 자기노출, 4. 정서적 지지, 5. 평가적 지지, 6. 정보적 지지, 7. 물질적 지지, 8. 사회적 지지, 9. 의도적 반추, 10.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11. 자가지각의 변화, 12.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13.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14. 외상후 성장

$p < .05$, * $p < .01$, *** $p < .001$

인 정서적 지지($r=.37, p<.001$), 평가적 지지($r=.31, p<.001$), 정보적 지지($r=.35, p<.001$), 물질적 지지($r=.35, p<.001$)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r=.29, p<.001$)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상후 성장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r=.32, p<.001$), 자가지각의 변화($r=.21, p<.001$),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r=.25, p<.001$)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에 대한 감정노출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r=.36, p<.001$), 평가적 지지($r=.30, p<.001$), 정보적 지지($r=.34, p<.001$), 물질적 지지($r=.32, p<.001$)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반

추($r=.30, p<.001$)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상후 성장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r=.36, p<.001$), 자가지각의 변화($r=.23, p<.001$),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r=.25, p<.001$)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의 경우 의도적 반추($r=.28, p<.001$)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상후 성장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r=.56, p<.001$), 자가지각의 변화($r=.51, p<.001$),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r=.29, p<.001$),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r=.13, p<.05$)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적 지지의 경우 의도적 반추($r=.27, p<.001$)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상후 성장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r=.51, p<.001$), 자기지각의 변화($r=.54, p<.001$),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r=.29, p<.001$),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r=.13, p<.05$)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지의 경우 의도적 반추($r=.31, p<.001$)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상후 성장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r=.56, p<.001$), 자기지각의 변화($r=.53, p<.001$),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r=.35, p<.001$),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r=.16, p<.01$)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지지의 경우 의도적 반추($r=.29, p<.001$)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상후 성장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r=.53, p<.001$), 자기지각의 변화($r=.51, p<.001$),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r=.31, p<.001$),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r=.15, p<.05$)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의 경우 외상후 성장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r=.37, p<.001$), 자기지각의 변화($r=.47, p<.001$),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r=.42, p<.001$),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r=.20, p<.01$)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검증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 외상후 성장의 관계구조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

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검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홍세희(2000)의 연구에 의하면 CFI, TLI는 0과 1.0 사이이며, 대략 0.9 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RMSEA의 경우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08이하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이러한 근거로 볼 때 본 연구의 구조모형 검증 결과 $\chi^2=134.887(f=48, p<.001)$, TLI=.96, CFI=.97, RMSEA=.08(90% 신뢰구간: .064-.096)로 나타나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자료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경로계수는 자기노출이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beta=.23, t=3.33, p<.001$),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beta=.22, t=3.34, p<.001$),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beta=.47, t=7.99, p<.001$),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beta=.42, t=6.93,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노출에서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경로계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매개효과의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고, 표 6에 제시하였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i>d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134.89	48	.96	.97	.08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자기노출 → 의도적 반추	.15	.23	.046	3.33***
자기노출 → 외상후 성장	-.01	-.03	.032	-.45
사회적 지지 → 의도적 반추	.31	.22	.091	3.34***
사회적 지지 → 외상후 성장	.55	.47	.069	7.99***
의도적 반추 → 외상후 성장	.37	.42	.053	6.93***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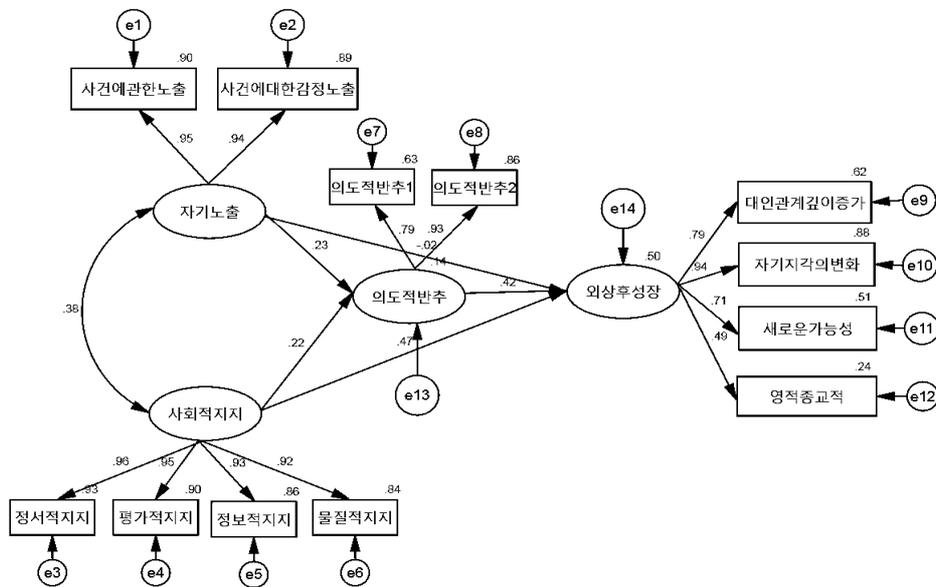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표 6.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분해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자기노출 → 의도적 반추	.23**	.23**	-
자기노출 → 외상후 성장	.07	-.02	.10**
사회적 지지 → 의도적 반추	.22**	.22**	-
사회적 지지 → 외상후 성장	.56***	.47***	.10**
의도적 반추 → 외상후 성장	.42***	.42***	-

** $p < .01$, *** $p < .001$

다. 그 결과 자기노출이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23($p < .01$)으로 유의미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22($p < .01$)로 유의미하였으며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으로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42($p < .001$)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 .47($p < .001$), 총효과 .56($p < .001$), 간접효과 .10($p < .01$)으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자기노출의 경우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10($p < .01$)으로 유의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관계 상실 외상 경험 여고생의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노출과 외상후 성장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관계 상실의 경험에 대한 자기노출을 많이 할수록 외상후 성장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노출과 외상후 성장과의 관계 연구(전유진, 2009; 단두리, 2013; 송현, 이영순, 2013)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노출과 외상후 성장과의 관계 연구(김현미, 정민선,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노출과 외상후 성장과의 관계 연구(정민선, 2014)와 일치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성장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외상후 성장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성장(신선영, 2009; 정지혜, 2014; Park, Cohen & Murch, 1996),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성장(김현미, 정민선, 2015),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성장(박선정,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성장과의 관계를 본 연구(정민선, 2014)와 일치한다.

셋째, 의도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 외상후 성장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도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박보경, 2013; 박예슬, 2013; Bower, Kemeny, Taylor, & Fahey, 1998; Ullrich & Lutgendori,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사별 경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유희정, 2015),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선정, 201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현미, 정민선,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자기노출과 외상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간접효과(.10)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효과(-.02)는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두리(2013)의 연구에서 자기노출이 외상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영향을 주고, 전유진(2009)의 연구에서 자기노출이 외상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의도적 반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기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달리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이 외상후 성장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edeschi와 Calhoun(2006)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외상후 성장의 모델에서 자기노출의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반추의 결과물이 노출될 경우엔 오히려 주변의 비지지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본 정민선(201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이는 의도적 반추가 청소년에게 외상후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외상에 대한 자기노출을 할 때 반드시 의도적 반추가 일어나야 하며,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여자 청소년 내담자가 외상사건에 대한 자기노출을 할 때 의도적 반추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다면 외상사건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외상후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의 경우 외상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간접효과(.10)와 직접효과(.47)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유진(2009)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의도적 반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선영(2009)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본 김현미, 정민선(2015)의 연구에서 외상사건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본 박선정(201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의도적 반추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 상실 경험 여고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즉 외상사건 경험에 대한 사회적 지지만으로도 외상후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의도적 반추가 일어나며 이러한 의도적 반추로 인해 외상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상담 장면에서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 내담자를 지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피드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이 되고 스스로 외상 경험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재평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관계 상실을 경험한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화의 문제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성별, 학년 등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일반화를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응답자가 직접 문항을 읽고 체크하도록 되어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고하여 응답하므로 기억 왜곡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상태가 설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외상 발생시기와 기간을 통

제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Tedeschi와 Calhoun(2006)는 기존의 외상후 성장 모델에서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를 양방향적인 관계로 보고 자기노출과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노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Tedeschi와 Calhoun(2004)의 외상후 성장 모델이 관계 상실을 경험한 여자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뇌졸중환자(박철중, 2014), 암환자(심보운, 2013)와 같은 질병과 관련한 외상 경험자, 각종 사고와 재해에 노출되는 경찰공무원(전유진, 2009) 및 소방공무원(김영재, 2012) 등 다양한 대상에게 외상후 성장의 경로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상후 성장 과정을 밝히는 연구는 부족했다(김현미, 정민선, 2015). 본 연구는 연령대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외상사건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고생(서영석 외, 2012), 그 중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교통스러운 외상 경험(양난미 외, 2015)으로 알려진 관계상실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상실 경험 여고생에게 Tedeschi와 Calhoun(2004)의 외상후 성장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관계 상실 외상을 경험한 여고생의 부모, 교사, 상담사 등에게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외상후 성장을 잘 경험한다

는 선행연구(최승미, 2008)와 대인외상경험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들의 외상후 성장 수준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윤명숙, 박아란, 2015)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계상실을 경험한 여고생도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후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외상에 대한 자기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지 뿐만 아니라 외상사건으로부터 잠재적인 의미나 긍정적인 점 등을 찾아내는 의도적 반추를 촉진한다면 관계상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위기의 극복을 넘어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재 (2012). 소방공무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사회적 지지, 대처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정민선 (2014).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관련 변인 탐색. *교육치료연구*, 6(2), 213-228.
- 김현미, 정민선 (2015). 청소년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2(1), 11-24.
- 김희숙, 박완주, 박경란, 김미향 (2012). 청소년의 인간관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1(1), 11-20
- 단두리 (2013). 자아탄력성 및 자기노출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경 (2013). 대학생의 탄력성, 삶의 의미, 의도적 반추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정 (2015).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0, 71-94.
- 박예슬 (2013). 외상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심리적 수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호 (2007).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복생각, 생각억제 및 자기노출이 정서와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철중 (2014). 뇌졸중 환자의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실 (2002). 부모사별 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처자원과 가족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청소년들의 외상사건 경험. *교육심리연구*, 26(3), 787-816.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 이영순 (2013). 회피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753-3767.
-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보운 (2013). 위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삶의 질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귀화 (2014).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난미, 이은경, 송미경, 이동훈 (2015). 외상을 경험한 여자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175-197.
- 유희정 (201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희정 (2015). 사별 경험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2(2), 323-339.
- 윤명숙, 박아란 (2015). 청소년의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7(3), 239-261.
- 윤운영, 유금란 (2013). 아동 및 청소년의 상실 경험에 대한 이해와 학교 상담의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241-262.
- 은현정, 이선미, 김태형 (2001). 일 도시 지역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역학 조사. *신경정신의학*, 40(4), 581-591.
- 임선영 (2014). 관계상실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외상후 성장 촉진 프로그램의 효과. *인지행동치료*, 14(3), 339-358.
- 전유진 (2009). 경찰공무원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선 (2014). 대학생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

- 지와 외상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415-430.
- 정지혜 (2014). 사회적 지지, 심리적 유연성,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재, 안현의 (2013).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323-341.
-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영 (2010).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ower, J. E., Kemeny, M. E., Taylor, S., & Fahey, J. L. (1998). Cognitive processing, discovery of meaning, CD 4 decline, and AIDS-related mortality among bereaved HIV-seropositive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979-98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lhoun, L. G., & Tedeschi, R. G. (1999).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ellermann, P. F. & Hudgins, M. K. (2000). *Psychodrama with trauma survivors*,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Leist, M. (1979). *Kinder begegnen dem Tod*. Gütersloh.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 71-105.
- Tedeschi, R. G., Park, C. L., & Calhoun, L. G. (Eds.).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s Oaks, CA: Sage.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New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Inquiry*, 15(1), 93-102.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6).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Ullrich, P. M., & Lutgendori, K. (2002). Journaling about stressful events: Effects of cognitive processing and emotional expression.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4, 244-25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ick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1차원고접수 : 2016. 01. 24.
 심사통과접수 : 2016. 03. 02.
 최종원고접수 : 2016. 03. 15.

Effects of Self-Disclosure and Social Support on Posttraumatic Growth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ho Experienced Relational Loss: Intentional Rumination as a Mediating Variable

Yu Ri Lee

Hyun A Chang

Daeje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social support and intentional rumination of a female high school student who experienced relational loss on posttraumatic growth. This study also aims to examine whether the intentional rumin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growth.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s were carried out to 415 high school students in capital area. In this questionnaire, unreliable responses, a traumatic events which just happened one month ago, the data which marked the pain level below 4 points after traumatic event and cases that were not related to a relational loss were excluded. Finally, 286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For analysis, traumatic event experience questionnaire, self-disclose scale, social support scale, intentional rumination scale and Korea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were used. The result was analyzed by SPSS 22.0 and AMOS 22.0. A basic statistics and structure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significance of structural model's mediator effect was proved with Bootstrap method.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sttraumatic growth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elf-disclosure, social support and intentional rumination. Second, intentional rumination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posttraumatic growth. also, indicate that intentional rumination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growth.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Relational Loss, Female High School Student, Self-Disclosure, Social Support, intentional Rumination, Posttraumatic Growth